

# Excitement!

베트남의 아침은 매우 일찍 시작된다. 베트남 사람은 습관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동남아시아 땅에서는 오래 게으르게 산다는 편견이 여  
기선 통하지 않는다. 가로등이 몇 없는 시골 베트남에서는 빠르고 가벼운 자전거 굴림이 고요한 아침을 깨운다. 6시가 되기도 전에 서서히 아침 햇  
살에 밝아지기 시작했고, 금세 시끌벅적한 오토바이 클랙션 소리로 요란스러워졌다. 베트남의 아침은 마술 같은 힘을 발휘한다. 짠내가 진하게 나  
는 수산시장에 가든, 밀림 속의 놀라운 고대유적에 발을 들여놓든, 하루 중 가장 생기 있고 힘찬 시간은 해가 떠오르는 그때다. 당신이 길쭉하게 늘  
어선 베트남 땅의 어딘가에 있다면, 다음날 아침은 '베트남식 설렘'으로 맞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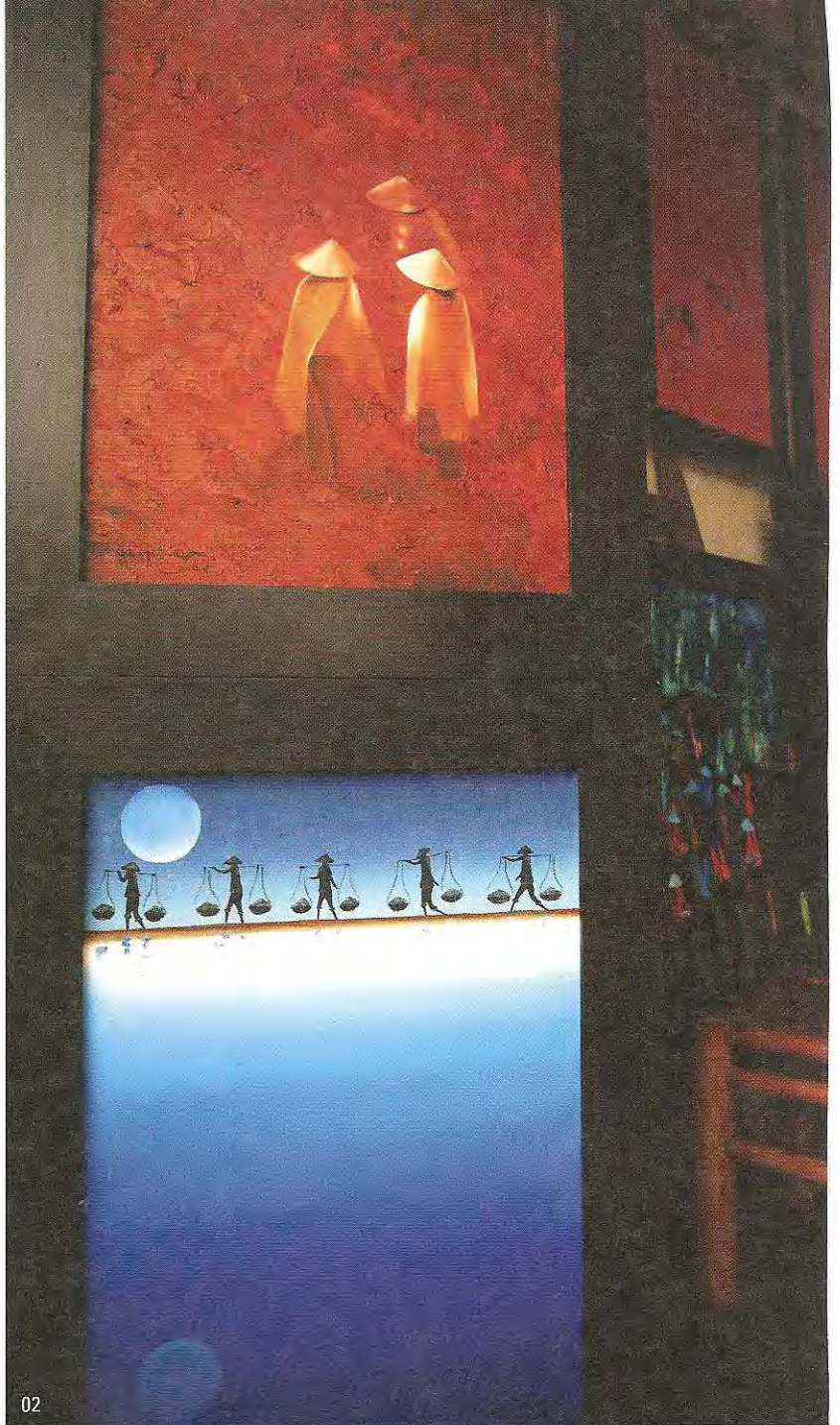
글, 사진 : 성화주 | 취재협조 : 베트남항공(www.vietnamairlines.co.kr)





### 생각보다 가까운 나라 베트남

세계지도를 펴보면, 베트남은 분명 동남아시아 국가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나 이들의 문화를 보면 영락없는 동북아 국가다. 한국, 중국, 일본이 한자문화권에 속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어떤가. 이곳 역시 한자를 기본으로 한 언어를 발전시켜왔다. 호객행위를 하는 현지인에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Where are you from?”에, “Korea” 대신 “한국”이라고 대답해보자. “한권?” 하며 되물어올 것이다. 콩교롭게도 ‘한국’은 베트남 발음과 우리네 발음이 비슷해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으므로 기억해두면 좋다. 중부의 주요 도시인 ‘hue’는 ‘화합할 화(和)’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같은 한자를 두고 다르게 읽는 한, 중, 일어처럼 베트남 역시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유교문화도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눈부신 기적을 일궈낸 한국의 경우처럼, 종전 40여년을 바라보는 베트남은 한국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한다. 이곳에서의 상상을 초월하는 한류열풍은 베트남인이 우리에게 느끼는 동질감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작용했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70년대를 겪은 세대는 베트남에 와서 당시 한국의 모습을 곱씹어본다 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새벽을 여는 민족이 됐다. 이곳 사람들의 근면함으로 베트남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언뜻 봐선 잘 보이지 않는 익숙함이 베트남 곳곳에 숨어 있다. 하루를 머무는 것보다 이틀을 머물 때, 이틀보다는 일주일을 들여다볼 때 친근함이 배가되는 곳이 베트남이다.





01 베트남의 상징적인 교통수단 시클로.  
 02 아트갤러리가 많은 베트남. 실크프린트나 유화기법을 이용한 그림을 많이 판매한다. 전형적인 베트남의 이미지를 담은 작품이 많아 기념품으로 좋다. 03 호치민 시의 가장 북적이는 시장 '벤탄시장(Cho Ben Thanh)' 앞 시클로군.

### 베트남이 보여주고 싶은 것, 베트남에서 보고 싶은 것

베트남의 주요 도시를 돌아보면 공사 현장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곳저곳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그런 현장을 지날 때면 이방인은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활짝 피기 전 꿈틀대는 개발도상국이 정돈되지 않은 시기를 거치듯, 현재의 베트남이 딱 그런 모습이다.

휴대폰으로 위성방송을 보는 이 첨단시대에 베트남은 왠지 순박하게 남아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알량한 기대감이 관광객에게겐 있지 않다. 자전거에 탄 채 흰 아오자이 옷자락을 휘날리는 소녀로 대변되는 베트남의 '순진함'은 어쩌면 베트남이 가장 벗고 싶어 하는 이미지일 것이다. 동남아 경제강국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뜨거운 공사현장의 열기를 봐주길 원한다. 호치민 시에서 만난 여행가이드 5년차 트뤼크(Truick)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관광객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지난 5년간 베트남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베트남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호치민 시로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산다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 남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며 털어놓았다.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더라도 이 나라 사람들이 진정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에 시선을 모아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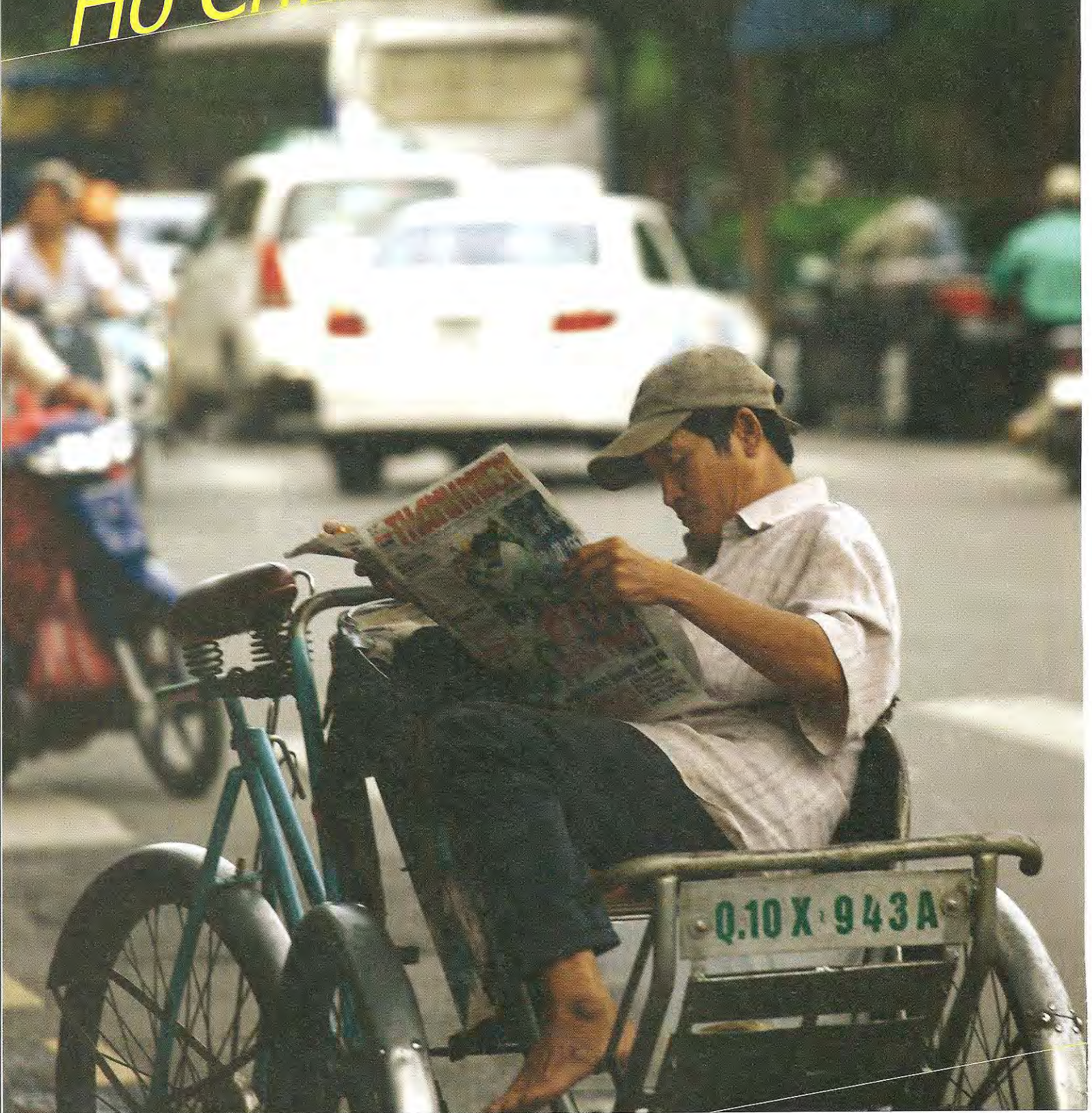




Mode Special\_ Ho Chi Min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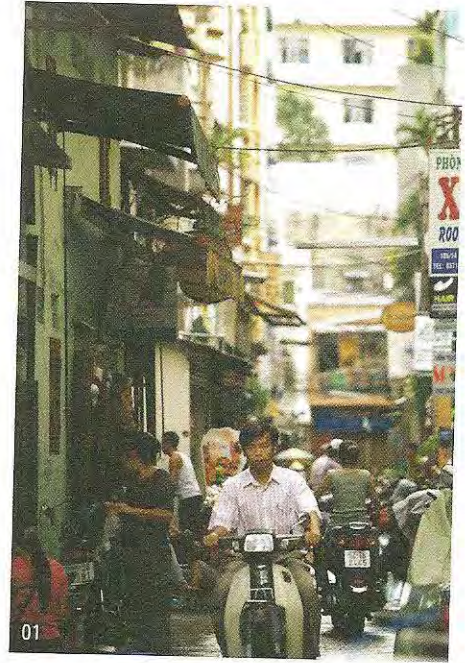
# Ho Chi Minh City

활기찬 도시로 발걸음을 옮기다





01 배낭족이 모여드는 팜 응 우라오 지역의 좁은 골목, 배낭객을 상대로 한 오토바이 렌탈숍이 즐비하다. 02 동커이 루이비통 매장 앞.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거리에서 사진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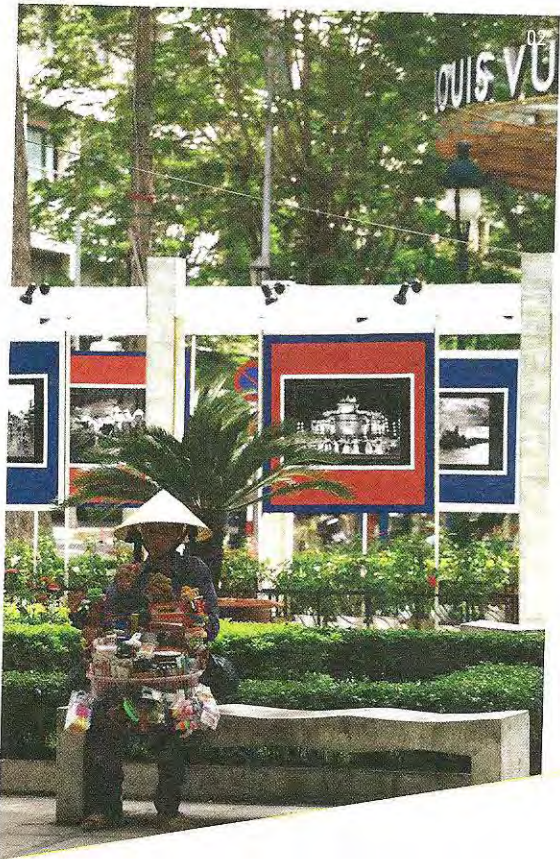
호치민 시의 첫인상은 팔딱이는 물고기를 손에 막 쥐었을 때의 느낌 같은 것이었다. 수많은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 덕분에는 도시는 활주로처럼 보였다. 백만 대의 오토바이와 천만 인구. 호치민 시의 활기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교차로의 오토바이 행렬은 신호 바뀌기가 무섭게 밀려들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와 남부 특유의 여유로움을 가진 사람들. 호치민에서 사람들은 빠르고 깊은 눈인사를 주고받는다.

지형적으로 볼 때, 베트남의 가장 큰 자랑은 1,000km가 넘게 이어지는 유려한 해안선일 테다. 남중국해가 온전히 자기네 것인 양 잠시도 바다를 벗어나지 않은 채 길게 뻗어 있다. 모든 흐름이 위아래의 방향으로만 이루어진 탓에 여러모로 불편한 지형이라며 불평하는 이가 많지만, 이 독특한 땅 모양이 베트남을 만들어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다

북부의 하노이와 남부의 호치민 시는 전혀 다른 나라처럼 보인다. PK, TK 하며 지역 감정을 운운하는 이들이 한국 사람들만은 아니었나 보다. 섞이기 쉽지 않은 두 대륙이 하나가 된 것처럼 뚜렷한 지역색이 베트남을 종단하는 일정 내내 엿보였다. 호치민 시는 남부 베트남의 수도였던 곳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남부 베트남은 북부의 공산주의 정권에 흡수되었고, 정치적 수도는 하노이가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가장 뜨겁게 약동하는 곳은 지난 수십 년간 호치민 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경제적으로, 호치민 시민은 연 소득으로 따져봤을 때 다른 도시민의 3배 이상을 벌어들인다. 호치민에서 벌어 베트남을 먹여 살린다는 약간의 우월감이 남부 베트남 사람에겐 있다고 했다. 통일 후 호치민 시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남부 토박이들은 이 활기찬 도시에서 '사이공'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사이공은 호치민 시의 한 구역을 일컫는 말이나, 여전히 사이공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호치민 시가 되기 전 사이공은 1859년 프랑스령 코친차이나의 수도였다. 독립 후 북베트남에 정복되기 전인 1975년까지 베트남공화국의 수도였다. 중국 상인들은 정치적 세력과 관계없이 오래도록 호치민에 등지를 틀고 살았다. 사연이 많은 도시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기 마련이다. 잠시 머물다 간 세력이라도 그 흔적이 도시에 깃들고 그 위에 새로운 양식이 덧입혀져 국제적인 도시는 여러 문화를 보듬는 것이다. 하지만 호치민 시에서는 이 다양한 문화가 섞이지 않은 채 명확하게 구획 지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 프랑스의 작은 마을, 동카이

먼저 동카이(Dong Khoi) 지역만 떼어놓고 보면, 이곳은 영락없는 프랑스의 소도시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 영어와 베트남어로 주말 미사가 한창이었다. 두 개의 첨탑이 고전적인 고딕건축을 표방하고 있었다. 일요일이면 미사를 보러 온 사람들과 웨딩 촬영을 하는 신랑 신부로 북적댄다. 여기서 촬영한 사진은 마치 외국에서 찍은 것처럼 보여 인기가 좋다고 했다. 성당 바로 옆은 중앙우체국인데, 내부의 절제된 아치형 건축이 큰 볼거리이다. 미술작품을 전시해야 어울릴 고풍스런 외관과 내부 장식이 눈길을 끈다. 옛 기차역을 미술품 전시에 이용한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건축물 안에서 잠시 17세기 유럽으로 빠져들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눈앞에 들이닥치는 오토바이 행렬에 이질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노트르담과 우체국에서 시작해 메린 광장으로 이어지는 지구를 동카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았던 지구다. 전쟁, 정권정탈 과정의 격렬한 시간을 겪으면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국으로 돌아갔다. 현재 동카이는 이국적인 맛을 즐기려는 베트남 부호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주지로 탈바꿈했다. 노트르담 성당 뒤로 보이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플라자(Diamond Plaza)는 베트남 최고급 서비스형 아파트에 속하는 건물이다. 이곳의 임대료는 4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다이아몬드 플라자가 동카이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이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로 등극한 셈이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동카이 거리는 점보택시와 고급 세단이 점령하고 있어 어느 베트남의 도로와 사뭇 다르다. 관광객들의 포토스팟이 된 인민위원회 청사나 고풍스러운 해외 영사관들, 우아한 오페라가 울려 퍼지는 호치민 시 대극장은 베트남 속 프랑스를 꾸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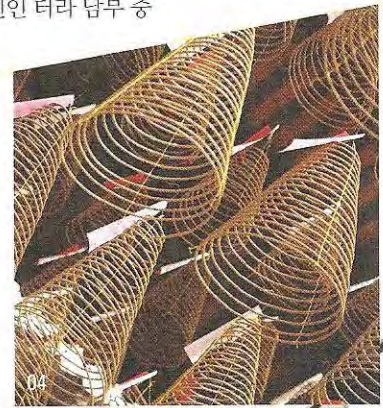


## 문화의 향기가 짙게 배인 곳, 출론

동커이의 산뜻함에서 짙은 사람냄새가 나는 차이나타운으로 장소를 옮겨보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산다는 출론(Cholon)에 닿으면 마치 다른 도시, 다른 나라로 이동한 듯 종전과 완전히 다른 왁자지껄함이 단숨에 밀려든다. 맨 먼저 찾은 곳은 차이나타운의 도매시장이다. 동남아시아 경제권을 꼭 잡고 있는 화교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시장이다. 빈띠이 시장(Cho Binh Tay)은 중앙의 커다란 시계탑이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대한 도매상가다. 관광객이 가서 딱히 구입할 만한 물건은 없지만 질편한 시장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내부는 한낮임에도 어두컴컴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좁은 통로만 남겨두고, 빈 박스에 노끈이 천지에 널려 있는 빈띠이 시장에서 정돈된 뭔가를 기대하진 말자. 한쪽 턱을 괴고 설 세 없이 광둥어로 무언가를 말하는 상인들 목소리가 실내 시장에 찌렁찌렁 울려 퍼진다. 형형색색의 옷감을 길다랗게 늘어뜨린 천가게가 한 라인을 차지하고, 그 모퉁이를 돌면 중국식 말린 과일류를 파는 식료품 도매상가에서는 달콤한 향이 퍼진다. 커다란 계피나무나 말린 버섯, 각종 향신료와 한약재류도 중국식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품목이다. 빈띠이 시장 앞은 물건을 떼러 온 소매상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차이나타운에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상가 거리와 그 사이사이의 사원, 회교회관이 어우러져 있다. 호치민 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알려진 작림사(Chua Giac Lam)에 들어서자 신도들이 막 불을 피운 향내가 코끝을 자극했다. 10여 분간 사원 내부를 돌아보는데, 30여 명은 죽히 님을 향이 새로 피워졌다. 회오리 모양으로 감긴 향을 천장에 내걸면 고깔 형태로 늘어뜨려져 일주일을 탄다고 했다. 새로 피운 향과 오랜 향의 질감이 섞여 사원 내부는 여러 공기층이 형성된 듯 신비로운 분위기였다. 베트남에 자리를 잡은 중국인들은 대다수가 광둥지방 출신인 터라 남부 중국에서 볼 수 있었던 화려한 사원 건축이 이곳에 재현되어 있다. 4차선 도로를 바로 마주한 이 세속적인 사당에서 시장으로 향하던 화교는 잠시 복을 빌고 치열한 현장으로 다시 뛰어든다.

01 동커이 지구의 시작을 알리는 노트르담 성당. 02 일요일이면 성당 앞에서 웨딩촬영을 하려는 커플을 쉽게 볼 수 있다. 03 중국식 약재와 향신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출론. 04 작림사 내부의 천정에는 복을 비는 향이 가득 매달려 있다. 05 화교들이 모여 사는 출론에서 사원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차로와 바로 마주하고 있는 작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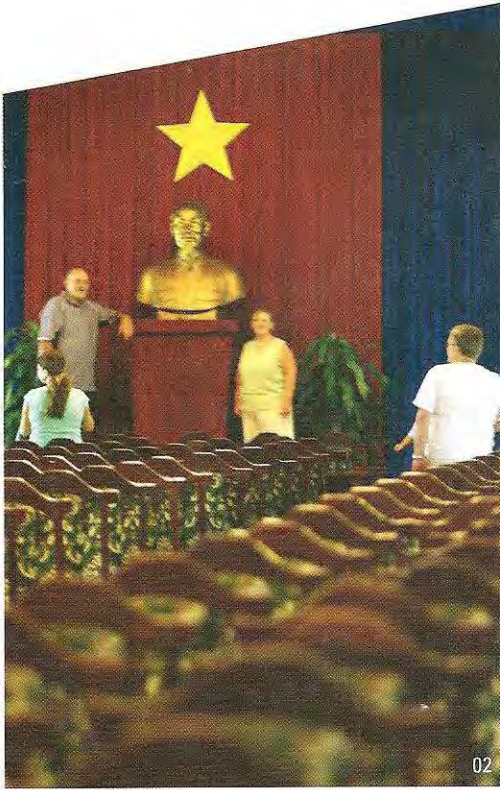








- 01 통일 전 남베트남의 수뇌부가 있었던 곳 통일궁.
- 02 통일궁 내부의 호치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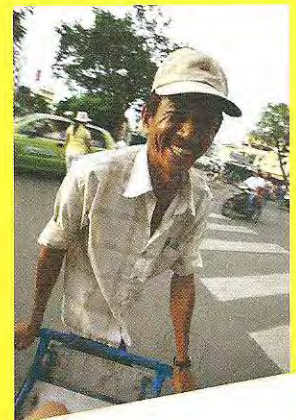


### 리얼 베트남의 경험, 사이공

호치민 시의 이국적인 매력과 어깨를 견주는 호치민 속 '사이공', '리얼 베트남'은 여행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다. 호치민 시의 1군(사이공이라 구분되는 지역)에 모여 있는 각종 박물관과 기념관, 그리고 통일궁은 베트남의 역사가 고스란히 서린 공간이다. 하나같이 '인상적이다' 라고 입을 모으는 전쟁박물관(Bao Tang Chung Tich Chien Tranh)은 반드시 가보아야 할 장소. 이곳은 다큐멘터리 사진 위주의 전시로 전쟁의 참상을 전한다. 베트남 전쟁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한 100여 명의 중군기자들이 남긴 사진만으로 베트남 전쟁이 피부에 와닿는 듯 생생하다. 또한 전쟁 시 독방으로 쓰였던 타이거 케이지(Tiger Cage)를 재현해 참혹했던 당시를 떠올릴 수 있게 했다. 마지막 전시실 한가운데에 'May Peace Prevail On Earth' 라는 문구가 쓰인 피스 칼럼(Peace Column)이 굳건히 서 있다. 숙연해진 표정으로 박물관을 나서는 방문객만 보아도 이 작은 공간의 영향력을 알 만하다. 전쟁박물관과 한 블록 떨어져 위치한 통일궁(Hoi Truong Thong Nhat)은 한때 남부 베트남 정부의 수뇌 역할을 했던 건물이다. 베트남의 깃발이 걸린 이후 패망한 정권의 잔재로 남아 내부는 쓸쓸함이 감돈다. 대통령 집무실, 연회실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호치민 시에서 최고의 볼거리로 손꼽히는 곳이다. 내부 관람 후 호치민 시의 오토바이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다면 통일궁이 확보하고 있는 넓은 정원을 추천한다. 이외에도 역사박물관(Bao Tang Luch Su), 미술관(Bao Tang My Thuat)이 지척에 있어 함께 돌아보기에 좋다.

## Ho Chi Minh SPECIALTY

대다수의 볼거리가 1군에 몰려 있는 호치민 시에서 가장 특별한 시티투어는 시클로 투어다. 주요 관광지를 반나절 동안 돌아보는데, US\$12~13 정도를 지불하면 적당하다. 물론 흥정은 기본이다. 배낭족이 모이는 팜응우라오(Pham Ngu Lao) 지역에는 저렴한 호텔과 호텔 투숙객만큼 많은 시클로 기사가 밤낮을 안 가리고 거리에 줄지어 있다. 팜응우라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수많은 시클로가 당신을 향해 손을 흔들며 달려올 것이다. 이른 아침 잠시 물을 사러 나갔다가 10여 명의 시클로를 물리쳐야 했다는, 한 배낭족의 무용담은 팜응우라오에서의 일상이다. 호치민 시에서 한 번이라도 시클로를 탈 기회가 있다면, 운전수는 뒷자석에서 투어 일정과 관광객들의 여행 후기(?)가 빼곡히 적힌 노트를 주섬주섬 내밀며 어느 호텔에 묵느냐고 물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 운전수는 틀림없이 호텔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어지러운 도시에서 여행자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호텔 앞의 시클로 로꾼들이다. 이들에게서 호치민 시에 대한 그들만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잡는다면, 이보다 더 특별한 베트남 여행은 없을 것이다.



Life is a Journey | **MODE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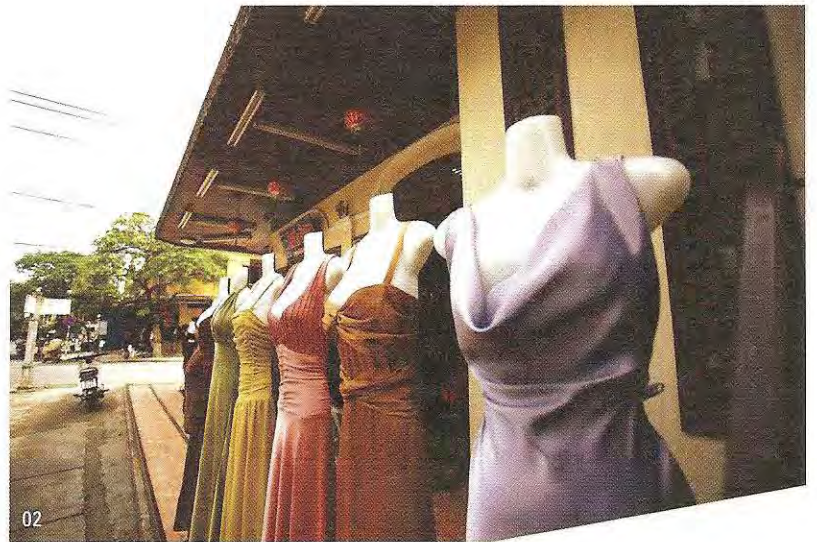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은 언제나 풍성하다. 민물과 짝물이 온갖 해산물을 가져다주고, 배를 탈수 있는 항구가 있어 오고 감이 잦다. 호이안은 실크가 오갔던 바닷길의 한 길목이었다. 일본인들은 여기에 지붕이 있는 나무다리를 세우고 떠났고, 중국인들은 다섯 개나 되는 화교회관을 남겼다. 프랑스풍 테라스를 모사한 건물은 호이안에 띄어올리는 건축양식이었다.

**호**이안에는 소위 '장기 체류자'가 많다. 게으른 배낭족은 베트남의 정중앙인 호이안에서 휴식을 취한다. 등을 기대고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동네를 베트남에서 꼽자면 그 1순위는 호이안이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와 곳곳에 여행자에게 손짓하는 노천카페가 있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여기서라면 지루하지 않을 듯하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호이안 옛거리리를 흘러다니는 유려피안은 거리 풍경과 매우 잘 어울려 마치 그네들의 동네에 있는 것인 양 보였다. 언뜻 보면, 호이안은 동양적인 맛이 깃든 유럽 같다.

### 매력적인 고도시, 호이안

냉정하게 말해, 호이안은 과거의 영화를 잃고 쇠락한 도시다. 바닷길이 변영하던 시기 호이안에는 파란 눈의 상인과 흑발의 중국 상인이 말을 섞었다. 활발한 교역의 증거는 호이안 구시가의 도자기박물관, 바다실크로드박물관에서 엿볼 수 있다. 일본과의 주요 교역물이었던 도자기가 호이안에는 넘쳐났다. 최고급 실크 옷감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각종 차와 사치품을 싣고 들어온 배는 호이안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바다 교역이 점차 쇠퇴하고, 호이안을 바다와 연결하는 투본 강(Thu Bon)에 침니가 쌓여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해지면서, 호이안은 30km 거리의 도시 다낭(Danang)에 상업 중심지 역할을 내주었다. 그러나 전쟁통에도 온전히 살아남은 호이안의 옛거리리는 과거의 영화를 머릿속으로나마 그려보고자 하는 관광객들로 활기를 되찾아간다.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지만, 호이안이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유명세를 떨친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호이안이 관광객에게 베푸는 평온함은, 호텔을 나서면 정신없는 오토바이 행렬과 어김없이 마주치게 되는 베트남의 타 도시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01 프랑스풍 아치 대문과 시클로가 묘한 조화를 이루는 곳. 호이안의 풍경은 이채롭다. 02 테일러숍이 유난히 많은 호이안. 심플한 이브닝드레스를 특히 많이 판다. 03 테일러숍에서 직접 옷감을 고를 수 있는데, 꼭 먼저보고 고르는 게 좋다. 질 좋은 베트남실크를 고르기가 만만치 않다.





## 편안함을 베푸는 옛거리를 걷다

호이안 옛거리는 기와지붕에 이끼가 그득한 중국식 집과 아치형 현관, 테라스로 대변되는 서양식 건물이 교차해가며 세워져 있다. 건물은 하나같이 노란 톤이다. 낡음의 정도에 따라 노란색의 명도와 채도가 달라진다. 세월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비로운 색의 조화에 누구라도 반할 만하다. 매력적인 옛거리의 60%가량은 맞춤복, 맞춤신발 전문점인 듯 보였다. 눈길을 한 번이라도 줄라치면, 줄자를 들고 뛰어나와 “Your Size”를 만들어주겠다. 호이안의 재단사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다. 온 도시에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호이안이라는 게 과장된 설명은 아니었다.

호이안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다는 양장점 ‘YALI’를 찾아가봤다. ‘made to measure’를 내건 수많은 가게 중 가봉을 위해 긴 줄을 서야 하는 유일한 집이었다. 깔끔한 블랙 카테일 드레스는 US\$60 정도, 코듀로이 재킷류는 US\$70~80 선이었고, 최고급 실크 정장도 US\$200을 넘지 않았다. 해외 패션 매거진이 테이블마다 가득 쌓여 있고, 파란 눈의 고객들은 돌체&가바나의 최신 디자인을 가리키며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디자인과 옷감을 고르고, 넉넉하게 1박 2일이면 내 몸에 꼭 맞는 수트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베트남의 재봉 기술은 아시아에서도 알아주는 것이 거니와, 베트남 정부에서 관광 수입 창출을 위해 정책적으로 확대해온 면도 있다고 한다. 의류뿐 아니라 가죽 신발류도 취향에 따라 만들어 신을 수 있다. 멋스러운 부츠를 맞추려는 한 관광객은 수십 개는 더 되는 가죽 원단을 이리 재고 저리 재며 호이안에서 맞출 수 있는 색다른 쇼핑을 즐겼다.

1년 내내 외국인 관광객이 끊이지 않기에 옛거리는 테일러 숍을 비롯해 대부분이 기념품점으로 점철되어 있다. 과거 바닷길의 목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관광객들이 훗날 만한 칠기(漆器) 공예품과 색색의 등갓, 논(Non, 베트남 전통 모자)을 이용해 만든 관광용 상품, 중국에서 건너온 듯한 찻잔 세트가 주를 이루었다. 어느 가게에 가나 딱히 특색 없이 대량생산된 기념품이 빼곡히 차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옛거리를 걷다 보면 도통 진도는 나가지 않고 가게만 기웃거리게 되는 건 관광객의 관성인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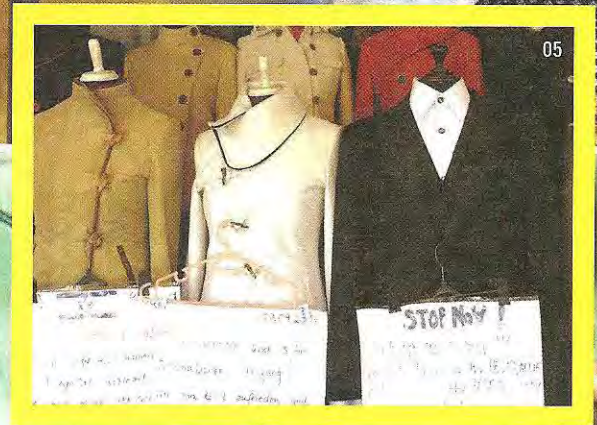
01,02 호이안에서 가장 쉽게 만나는 기념품들. 중국식 등갓은 우산처럼 접었다 폄다 할 수 있는 구조라 보관이 용이하다. 아오자이 차림의 목각인형은 US\$1~3 정도에 살 수 있는 저렴한 기념품이다. 03 호이안의 노점. 노랑과 파랑의 벽면은 어디에도 잘 어울린다. 04,05 테일러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호이안. 호이안의류시장에서 만난 노인은 연신 발을 구르며 재봉틀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다.







03



05



04





01

### 다채로운 역사의 산증인

수많은 솥들 사이로 호이안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귀중한 건축물들이 촘촘히 자리해 있다. 다채로웠던 역사를 대변하듯 그 종류도 제각각이다. 옛거리의 주요 사적을 돌아보는 입장권은 7만5,000동(VND, 100VND=약 5원)인데, 박물관, 화교회관, 고택, 무형문화재 관람, 기타로 분류된 사적 중 한 곳씩 방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고택에 들어가고 싶다면, 입장권을 두 번 사야 하는 격이다. 조금은 복잡한 시스템이나 유적지를 고루 보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박물관 중 추천할 만한 곳은 도자기박물관. 내부에 전시된 도자기도 진귀하거나와 박물관 건물 자체가 매우 아름답다. 새까만 목조건물인 도자기박물관은 단순하면서도 강한 기운을 풍긴다. 내실을 지나면 안마당이 나오고 같은 크기의 건물이 연이어져 있다. 2층으로 올라가 난간에서 내려다보는 호이안 거리는 다른 시각으로 다가온다. 도자기박물관에서 몇 걸음만 옮기면 푸젠 화교회관, 하이난 화교회관, 광둥 화교회관이 보이고, 역시 중국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관음사, 관운장 사당이 눈에 들어온다. 옛길 걷기에 지루해질 쯤이면 활기찬 중앙시장에서 시간을 보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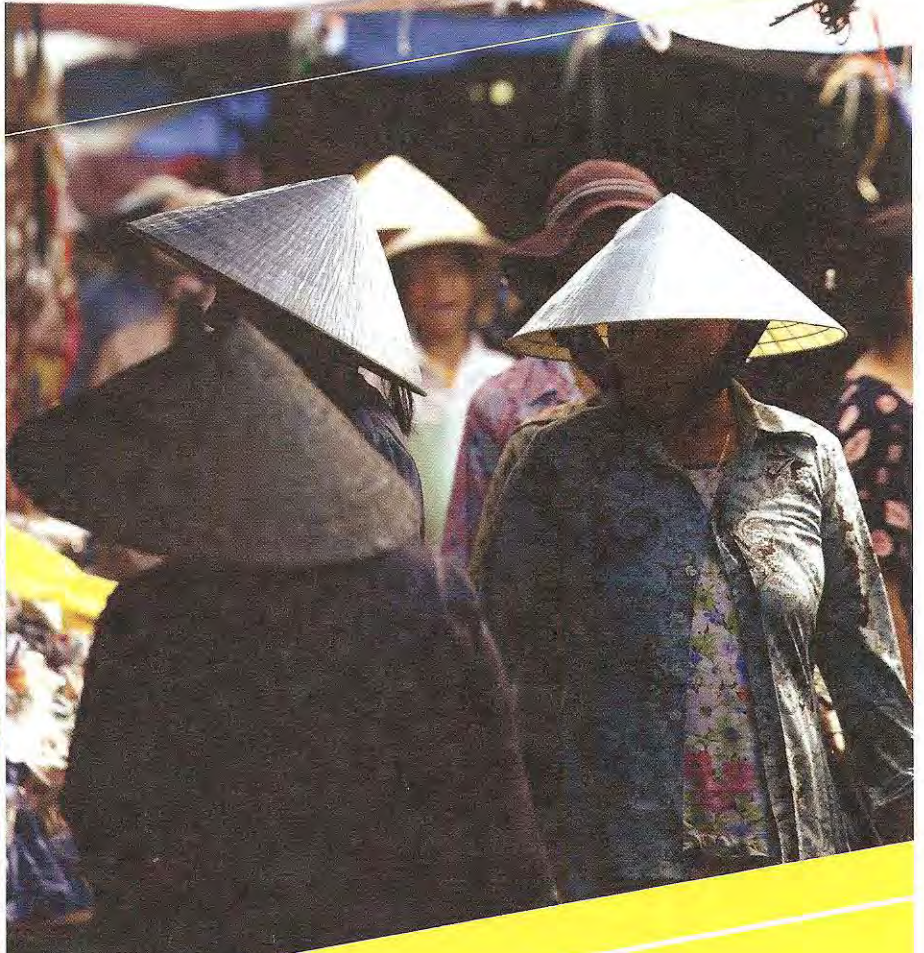
호이안 구시가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시장은 이른 아침일수록 매력에 배가되는 곳이다. 중앙시장은 각종 잡화, 기념품을 파는 곳이자, 이 지역 최대의 수산시장이다. 바다와 강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는 매일매일 이 중앙시장을 짚대로 가득 채운다. 목청 좋은 상인들은 십수 년간 그레왔던 듯 왈 자지껄하게 아침을 알려왔다. Non의 행렬이 시장 입구에서부터 물가까지 이어지고 거칠게 흥정하는 목소리가 오가다가, 정오가 되기 전에 상황은 종료. 이곳만의 활기찬 아침 푸닥거리를 보고 싶거든 반드시 중앙시장으로 가야 한다. 해가 뜨건 해가 지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사적은 우선 제쳐두고, 부지런한 여행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을 누리보자. 해가 중천에 뜨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상인들은 달콤한 낮잠에 빠져든다. 게으른 관광객은 그제서야 어슬렁어슬렁 걸어나가 내일을 기약할 따름이다. 여행까지 가서 웬 부지런이나 싶겠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곳은 활기찬 아침의 나라 베트남, 그중에서도 호이안이니까. **M**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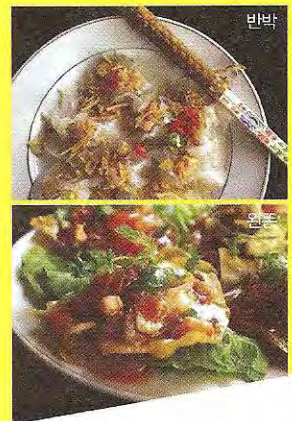


01 한적한 호이안 옛 거리. 02 도자기 박물관에서 내려다 옛 거리의 기념품 숍.  
03, 04 새벽 수산시장 풍경. 햇볕에 반짝이는 싱싱한 물고기와 눈을 놀라꾼 아낙들이 활기찬 수산시장을 만들어낸다.



## Hoi An SPECIALTY

호이안의 먹거리 기행 호이안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소개한다. **완톤(Won Ton)**은 바삭바삭하게 튀긴 만두피에 각종 야채와 소스를 올려 먹는 음식이다. 살사 맛과 비슷한 매콤한 소스와 새우, 소고기의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밀밭처럼 놓여 있는 만두피가 이색적이다. **반백(Banh Bac)**은 'White Rose'라 불리기도 하는데, 하늘거리는 쌀피 만두의 모양에서 착안해 붙여진 이름이다. 새우를 넣고 부드러운 쌀피로 감싼 만두 위에 고추양념을 얹고, 노릇하게 튀긴 쌀피를 잘게 부숴 넣어 먹는다. 기름기 없이 담백한 맛이다. 간단한 간식 대용으로 먹을 정도이고 한끼 식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길거리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호이안 음식은 **반세오(Banh Xeo)**다. 베트남식 부침개인 반세오는 쌀가루를 걸쭉하게 풀어 손바닥만 한 크기의 프라이팬에서 반달 모양으로 구워내는 음식이다. 새우, 숙주나물, 각종 야채를 뿌리듯 넣어 같이 익힌다. 기름기가 흥건해서 무더운 날씨에 구미가 당기는 음식은 아니지만 이 지역 특산물인 만큼 한번쯤 시도해보자.







Hue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마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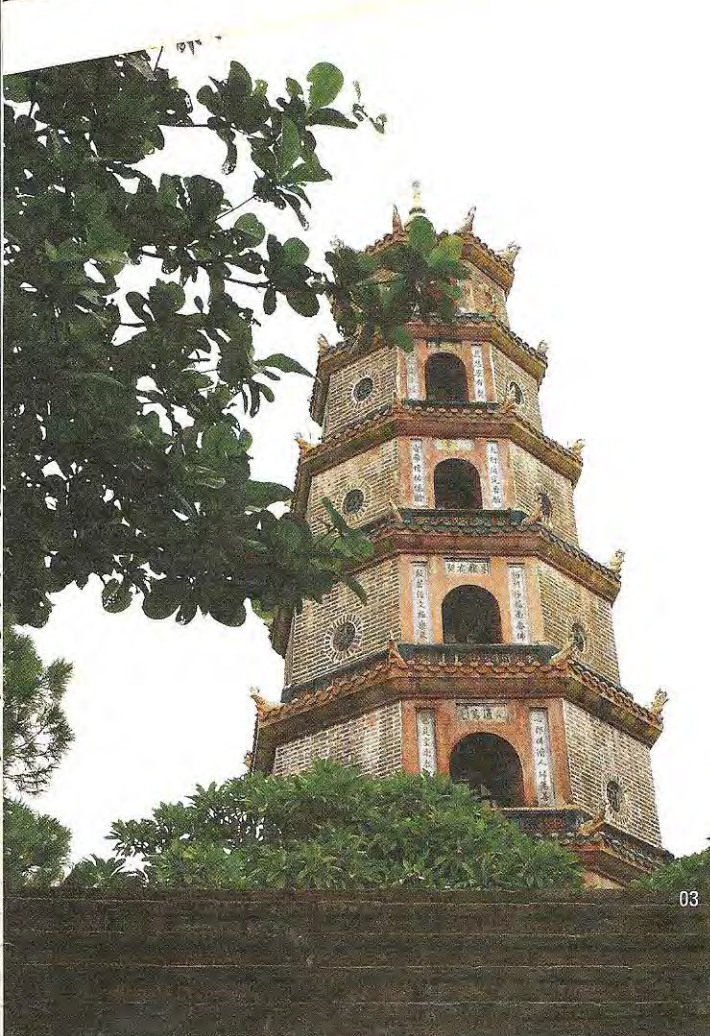




기름이 있는 고도시 휘에는 항강(Song Huong)이 흐른다. 강을 경계로 남과 북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주요 유적군이 모여 있는 강의 북쪽은 1940년대까지 휘를 통치한 응우옌 왕조의 흔적으로 시간이 멈춘 듯하다. 강을 건너면 역동적인 베트남의 상업도시가 펼쳐진다. 강을 오가는 휘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줄타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할지도.



01 휘에서 가장 시골벽적인 동바시장. 02 배낭여행객에게 인기있는 'STOP&GO CAFE'. 실용적인 여행정보를 얻기 좋은 곳이다. 03 티엔 무 사(Chua Thien Mu)는 1600년대 세워진 불교식사당으로, 국가의 안녕을 빌기 위해 지어졌다.



**중** 부 베트남에서 꽤 큰 도시에 속하는 휘에서 처음 든 느낌은 '고요하다'는 것. 가장 큰 시장인 동바시장(Cho Dong Ba) 주변을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이 정도 크기의 도시면 오토바이 행렬로 도로가 어지러울 법한데,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들 조용조용한 성품을 가졌는지 유독 차분한 도시였다.

### 왕조의 역사가 머물다

여행자들은 휘에 보존된 옛 유적을 보려고 온다. 그런데 와서는, 이곳 사람들과 도시 분위기에 반해 계획보다 더 오래 머물곤 한다. 하노이에서 아래로 내려온 여행자는, 날카로운 북쪽 사람들을 보다가 휘 사람을 만나니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다고 했다. 호치민에서 올라온 여행자는 상업성에 들지 않은 이곳 사람들이 오래도록 변치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화려한 황궁과 황제릉을 감싸고 있는 도시 휘의 분위기는 오랜 사적이 내뿜는 고즈넉함을 그대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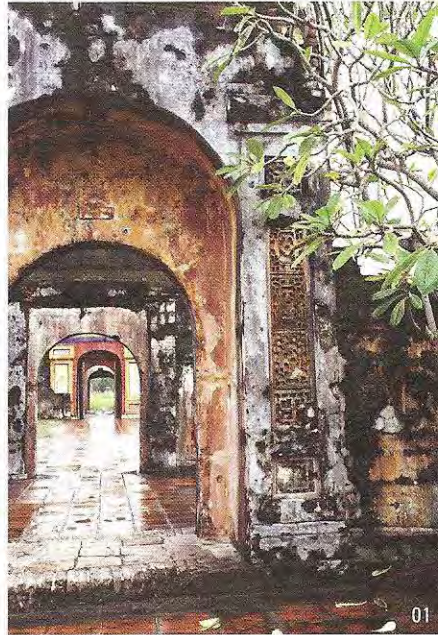
유네스코는 휘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복원, 보존작업을 하고 있다. 왕조의 역사가 최근까지 이어진 도시인 터라 수십 미터 간격으로 유적이 산재해 있다. 주요 볼거리는 5만5,000동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베트남에서 5만5,000동이면 유적지 입장료치고 최고 수준. 게다가 각 관광지마다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라 휘를 관광할 때 입장료 부담이 적지 않다. 이 수익으로 복원작업을 진행 중이라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이 비싼 편이다.



### 찬란한 역사를 대변하는 거대한 유적

항강 북쪽 정중앙은 황궁(Dai Noi)이다. 1945년 호치민의 임시 혁명정부에 자리를 내줄 때까지 응우옌 왕조는 황궁을 사용했다. 194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60여 년 전이다. 지름이 10km에 달하는 휘 성과 그 안의 황궁으로 응우옌 왕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황궁 안은 대부분 19세기에 세워진 중국식 궁전건축물로 채워져 있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 자금성(Tu Com Thanh)은 당시 황제의 사적인 공간으로 중국의 그것과 기능, 외관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였는데 전쟁을 피하지 못했다. 자금성은 유실되었지만, 왕비들의 거처로 사용된 디엔터(Dien Tho), 황실 도서관이 있었던 땅떠우 호수(Ho Tang Tau), 최근 복원된 황제들의 사당인 포미에우 사당(Den Tho Mieu) 등을 돌아보면 2시간이 족히 걸리는 방대한 규모의 유적이다.

휘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응우옌 황제의 무덤군을 돌아볼 수 있다. 시내에서 15km 이내에 10여 개의 황릉이 있다. 반나절 정도 서로 다른 양식을 보이는 왕릉 몇 개를 골라서 보는 게 좋다. 추천할 만한 황릉은 뜨득 황제릉(Lang Tu Duc), 카이딘 황제릉(Lang Khai Dinh), 민망 황제릉(Lang Minh Mang). 뜨득 황제릉은 통치 당시 가장 사치스러웠던 뜨득 황제를 그대로 반영하듯 매우 화려하다. 황제릉을 중심으로 황후묘와 각종 사당, 여러 개의 사치스러운 저택이 있고 이 모든 20여 채의 건물을 감싸고 도는 호수가 있으니 그 규모는 짐작할 만하다.




01 황궁은 자금성을 비롯해 수십 개의 별궁으로 이루어진 호화궁전이었다. 많은 건물들이 복원 중에 있다. 연결부의 오랜 성벽이 시간의 흐름을 말해 준다. 02, 03 휘의 황릉 중 가장 독특한 양식을 보이는 카이딘 황제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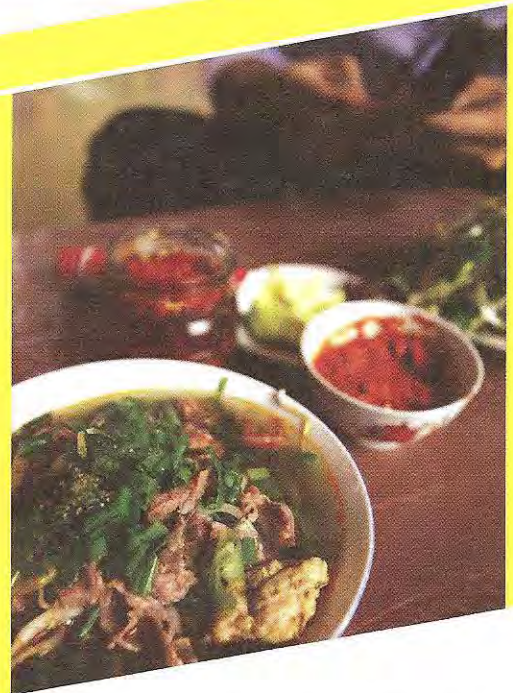


### 최신식 황제의 보금자리

황릉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카이딘 황제릉은 19세기에 만들어진 여타의 무덤건축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인 골격부터 차이가 난다. 가로로 길게 배치되어 주위 정원까지도 건축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19세기 무덤과 달리, 카이딘 황제릉은 3층에 걸쳐 밀도 있게 건축되었다. 동양적인 황릉 건축과 거리가 먼 형식이다. 카이딘 황제릉은 여러 세력이 혼재하던 당대를 반영한다. 192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곳은 프랑스 세력이 깊게 침투했던 당시를 반영하듯 유럽적인 요소가 곳곳에서 엿보인다. 황릉 좌우로 서 있는 석상의 얼굴에는 유럽인의 생김생김이 섞여 있어 흥미롭다.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졌으며,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황릉이다. 맨 위의 본 건물인 계성전(Cung Thien Dinh)은 내부 장식이 독특하다. 유리 파편을 이용한 벽무늬는 베트남에선 찾아보기 힘든 양식이다. 화려한 색감이 어두운 내부에서 오묘하게 빛이 난다. 뒤편 시냇물 돌아본 후 황릉을 보기 위해서는 교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로 차량을 수배해서 이용하지 않는다면, 향가를 따라 보트로 이동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면서 편리한 방법이다. 가격은 US\$5~7 정도로, 입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Hue SPECIALTY

베트남 고급 요리의 산실, Huế 왕조가 오래도록 머문 지역은 필연적으로 요리가 발달하기 마련이다. 술탄 황제의 까다로운 입맛을 매끼 만족시켜야 했던 터키가 세계 최고의 요리공화국이 되었는데, Huế는 베트남에서 최고급 요리의 본산지로 통한다. 화려한 왕궁으로 이름이 난 뜨득 황제는 식사 때마다 50가지의 요리를 준비하도록 시켰다. 해를 거듭할수록 Huế 요리는 세련된 맛을 더해갔고 지금까지 고급 요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서민 음식의 대표 격인 쌀국수도 Huế에선 다른 맛이 난다. 이른 아침 나항(Nha Hang, 좌판을 펴 놓고 음식을 파는 노점식당)에서 파는 Huế의 쌀국수는 번보(Bun Bo)라고 불리는데, 북부의 그것에 비해 고기국물이 훨씬 진하다. 향이 강한 고추나물을 많이 쓰지 않으며, 특정한 향신료 없이 고기를 푹 고아서 나오는 향에 기댄 깔끔한 맛이다.





# Vietnam Information

활기찬 아침의 나라로 가려면

## 항공

베트남항공은 인천-하노이, 인천-호치민 구간을 매일 2회 운항한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호치민의 경우 매일, 하노이는 주 4회(월, 화, 목, 토) 마련되어 있다.

## 현지 교통편

주머니가 가벼운 배낭여행객 대부분은 '오픈 투어(Open Tour)' 버스를 이용한다. 하노이와 호치민 시 사이를 이동하며, 주요 도시에 내려서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고 다음 도시로 이동할 때는 같은 티켓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종의 버스 '오픈 티켓'이다. 기차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 요금을 내야 하는 여행객에게 오픈 투어가 가장 저렴하고 편리하다. 버스 이동을 하면, 남중국해를 몇 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덤으로 제공되니 중부지역 이동 시에는 한번쯤 타보는 게 좋다. 다만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여행자에게는 그다지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호이안-나트랑 구간의 경우 밤버스로 12시간이 걸린다. 가장 기본적인 루트인 호치민-나짱-호이안-후에-하노이 오픈 티켓은 US\$30 이하다. 중간 구간이 늘면 약간의 추가 금액을 내면 된다. 베트남항공은 하노이, 휘, 다낭, 나트랑, 호치민 시 등 주요 공항을 연결하는 국내선을 운항한다.



## 화폐

공식 화폐는 베트남 동(VND)을 이용하지만, 미국달러화(US\$)의 쓰임이 많으므로 소액권을 넉넉히 준비하는 게 좋다. 달러로 금액을 지불하고, 잔돈이 생기면 베트남 동으로 돌려준다. 다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기념품을 살 때는 베트남 동으로 사는 게 좋은데, 상인들이 가격을 부를 때 달러로 환산하면 더 높게 부르기 때문. 100VND는 우리 돈 약 5원에 해당한다. 달러 환율은 1달러당 1만 6,000VND이지만, 실제로 물건을 팔 때 상인들은 1만 5,000VND로 환산해 계산한다.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은, 10만 동짜리 지폐를 취급할 때다. 신권과 구권이 있는데 구권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환전을 하거나 잔돈을 받을 때 구권이 섞이지 않았는지 유의하자.

## 기후

남부와 북부는 확연히 다른 기후 조건을 보인다. 11월은 지역에 관계없이 베트남 여행 최적기인데, 북부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상쾌하며 남부는 건기에 속하는 시기다. 남-북부 베트남을 모두 돌아볼 계획이라면 우리나라 여름~가을 날씨에 대비하면 된다.



www.bettertour.co.kr

**더존투어 | 주** **하나투어**

여행, 할인항공권  
상담 및 예약 **1600-6578**

## 아오자이 소녀의 실체는...?



베트남에서 이방인이 기대하는 얼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오자이를 입은 소녀일 것이다. 순백의 아오자이를 곱게 차려입고, 기다란 생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소녀. 그 소녀가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굴러준다면야, 이보다 더 완벽한 그림은 없을 터인데 그 장면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독자들이 기대할 가장 인상적인 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진이 잘 나올 만한 목에서 '스탠바이' 를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하루, 이를 지나면서 하염없는 스탠바이에 슬슬 짜증이 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흰 아오자이는 중고생의 교복인 경우가 많은데, 이 여학생들은 대부분이 야구모자를 폭 눌러쓰고 다닌다. 입과 코는 그녀들의 얼굴에 '거대해' 보이는 마스크로 완벽하게 가리고 있으며, 옷자락을 잡은 손을 볼라치면, 살색 면장갑에 가려져 있어 그마저 보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그녀들이 맨살을 드러낸 곳은 발가락 정도 될까? 새하얀 피부가 미의 척도로 받아들여지는 베트남에서 아오자이 '만' 입은 소녀의 환한 미소를 보기란, 그만큼 힘든 것이다. 베트남에 가면 '상상 속의 그녀' 들이 가득할 것이란 생각은 금물이다.

그나마 '베트남 소녀스러움' 에 가장 근접한 사진 한 장을 게재한다. 의외로 빠른 자전거의 속도에 카메라가 미처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것으로라도 아쉬움을 달랠으면 하는 바람이다.